

『율리시즈』의 서술의 불연속성과 조이스의 심미적 창조 — “싸이런즈”장과 “사이클롭스”장을 중심으로

김 희 선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그의 소설 『율리시즈』(*Ulysses*)에서 이 작품의 중요 인물로서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와 리오폴드 블룸(Leopold Bloom)을 제시한다. 『율리시즈』 속에 나타난 그들의 삶은 조이스가 그의 초기 소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 묘사했던 정신적, 도덕적 마비의 삶과 일치하는데, 조이스가 그의 작품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아일랜드 국민들의 정신적, 도덕적으로 마비된 삶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일차적으로 아일랜드가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정치적 상황이 원인이 된다. 아일랜드는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빠져 있으며, 그 속에서 아일랜드국민들은 영국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큰 특징은 카톨릭 종교에 의한 지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아일랜드에서 카톨릭 종교는 전통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카톨릭 종교도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이라는 아일랜드의 현실 속에서 아일랜드의 정신적 지주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타락해 가고 있다. 카톨릭 종교는 아일랜드 국민들을 전통과 인습으로 구속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영국 제국주의와 결합한 상태로 영국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아일랜드 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카톨릭 종교를 대표하는 인물들인 신부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있으며, 물질적이며, 세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정신

적 지주가 되어야 하는 아일랜드의 카톨릭 종교가 아일랜드 국민들에게 어떠한 구원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아일랜드의 부정적인 현실은 영국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생겨난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이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은 아일랜드를 영국 제국주의의 착취 속에서 구하겠다는 열망에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체 안에 모순을 축적해 가면서 부패해 가고 있다.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 안에는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성 못지 않은 폭력성이 있고, 또한 아일랜드 민족주의는 그 안에 편협함, 비이성적인 면, 감상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조이스는 이런 타락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를 영국 제국주의에 못지 않은 악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상황들은 조이스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현실이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그의 작품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조이스는 어느 작품보다 『율리시즈』에서 이러한 아일랜드의 부정적인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율리시즈』의 두 중요 인물 스티븐과 블룸 또한 이러한 아일랜드의 현실과 부합되게 좌절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둘은 극심한 내적 갈등 속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당하고 있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부정적 현실을 『율리시즈』 속에서 노출하면서, 아일랜드의 부정적 현실과 관련이 있는 스티븐과 블룸의 내적 갈등과 그들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작품 속에서 그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부정적 현실을 작품 속에서 노출시키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두 중요 인물 스티븐과 블룸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그들의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감행한다. 다양한 서술로 이야기를 전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조이스는 플롯의 단일한 전개에 의한 서술의 연속성이라는 서술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을 통해 서술의 불연속성을 창조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이러한 서술의 불연속성은 기법적, 언어적, 문체적 실험이 두드러지는 “이얼러스”(Aeolus)장, “배회하는 바위들”(Wandering Rocks)장, “싸이런즈”(Sirens)장, “사이클롭스”(Cyclops)장, “태양신의 황소들”(Oxen of the Sun)장, “써시”(Circe)장 그리고 “이타카”(Ithaca)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듯 조이스는 전통적인 소설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여 새로운 글쓰기

행위를 통해 그의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전통적인 소설의 기법에
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새로운 글쓰기 행위를 함으로써,
그의 부정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의 갈등 상황과 그
들이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극명하게 독자에게 전달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이스의 여러 형식적인 실험은 이런 형식적인 실
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들이 어떻게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느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율리시즈』에서 서술의 불연속성의 특징을 보이는 장들 중에서
“싸이런즈”장과 “사이클롭스”장을 선택하여, 조이스의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으로 인해 생겨난 서술의 불연속성이라는 특징이 조이스를 둘러싼 아일랜드
의 부정적인 현실과 두 중요 인물 중 특히 리오폴드 블룸의 내적 갈등과 그
의 갈등 극복과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싸이런즈”장에서 블룸이 몰리(Molly Bloom)의 부정으로 인해 겪게 되는 그의
극심한 내적 갈등과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지가 이 장의 형식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이클롭스”장에서 블룸의
내적 갈등과 그것의 극복뿐만 아니라, 조이스가 그의 부정적인 현실이라 생각
하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에 대한 조이스의 풍자가 이 장의 등장 인물과 형식
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싸이런즈”장에서 블룸을 가장 괴롭히는 요소는 부인 몰리와 블레이지스
보일란(Blazes Boylan)의 내시의 밀회이다. “싸이런즈”장 이전의 『율리시즈』 앞
의 장들에서 블룸은 보일란을 몇 번 목격한다. 그때마다 블룸은 보일란과 몰리
의 밀회를 떠올리며 소극적으로 피하느라 바빴다. 그는 보일란을 외면하려 하
며, 또한 몰리와 보일란의 만남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싸이런즈”장에는
블룸이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 모습도 나타나지만,
또한 그전의 장들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이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칼로 리나티(Carlo Linati)에게 보냈던 『올리시즈』 스키마에서 조이스는 이 장의 예술은 음악이고, 기법은 둔주곡(fuga per canonem) 형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장의 예술이 음악이니 만큼 노래의 제시 또는 음악적인 기교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장의 예술과 기법에 알맞게 이 장에는 많은 노래들이 등장한다. 이 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들은 불륨의 고통스런 상황을 암시한다.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불륨의 고통은 극대화되고, 몰리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극도의 상실감에 빠진다.

이러한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이 장의 기법과 기교는 특이하다. 특히 이 장에서는 조이스의 문체적, 기법적 실험이 두드러진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이 장의 처음 페이지에서 제시되는 다수의 구절들이다. 몇 개를 제시해 보겠다.

Bronze by gold heard the hoofirons, steelyringing.

Imperthnthn thnthnthn.

Chips, picking chips off rocky thumbnail, chips.

Horrid! And gold flushed more. A husky fifenote blew. (U 11. 210)

이것들은 문장이라고도 볼 수 없는 구절들이다. 이러한 구절들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텍스트(서곡을 제외한 이 장의 텍스트) 속에서 똑같은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즉 텍스트 속에 있는 구절들을 미리 앞에 뽑아 놓은 형태이다. 우리는 이 구절들을 텍스트 안에서 찾아냈을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 장의 구성은 전통적인 소설 속에서 볼 수 있는 서술에 변형을 가져온다. 그리고 쓰기의 임의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서곡을 제외한 텍스트 안에서도 음악적 효과를 내기 위한 말의 유희(verbal play)가 있고,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의 장들의 '초기 문체'(initial style)의 서술자와는 다른 서술자의 모습이 있다.

이 장의 서곡은 어떠한 극적 현실을 모방하지도 않고, 플롯의 전개와 관계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서곡은 서술의 논리의 붕괴를 가져오고, 쓰기의 임의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이 장의 예술이 음악이니만큼 어

떤 음악적 기법을 모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서곡에서 우리는 서술의 연속, 플롯의 전개를 떠나서 단어들에 집중하게 된다. 캐런 로런스(Karen Lawrence)에 의하면 “서곡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이해되는 의미론적 체계로 짜여지기 이전의 요소들을 본다. 그것들은 서술 범주(직접 대화, 삼인칭 서술과 같은)로 분류되지도 않고 극적인 상징들로 발전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거의 의미 없는 서곡에 직면하면서, 문학적 텍스트는 등장 인물, 플롯 또는 철학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92-93). 여기에서 단어와 구절들은 극히 자발적으로 된다. 이러한 “싸이런즈”장의 모습에 대해 로런스는 “소설은 그것의 구성의 법칙들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에 구조에 대한 이런 노출은 우리로 하여금 텍스트를 구축된 체계로 알게 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93).

서곡뿐만 아니라 서곡에 이어지는 텍스트에서도 기교(*artifice*)가 강조된다. 이 기교는 말의 유희와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플롯의 전개보다 쓰기의 행위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싸이런즈”장에서는 “멋없는 대조로, 무존재의 멋없는 대조를 이루어”(U 11. 220)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단어들은 재배열되어 반복되어지고, 다소 변형되어 반복되어진다. 그리고 위 예문의 “멋없는”은 앞에 나왔던 케네디양(Miss Kennedy)이 말했던 “멋진 대조지”(U 11. 211)와 도우스양(Miss Douce)이 말했던 “멋진 대조로 귀부인답게”(U 11. 212)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미 나왔던 구절을 변형하여 반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우 민첩하게”(U 11. 215)는 “우아한 민첩함으로”(U 11. 215)로 변형되어 반복되기도 한다. 이러한 것이 “싸이런즈”장의 말의 유희의 측면이다. 말의 유희에 대해 로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글쓰기의 드라마가 극적 행동을 빼앗아 간다. 이 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실험들은 서술의 문장들 안에서 행해지는 지엽적인 말의 유희이다.... ‘이얼러스’에서와 같이, 우리는 ‘싸이런즈’에서 언어의 표면으로 이끌려진다. 그러나 ‘싸이런즈’에서 언어의 유희는 거의 스토리 제시를 방해하는 것 같다”(94). 언어의 유희와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 이 장에 또한 나타나 있다. 이 장의 기법이 둔주곡이니만큼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하리라 생각된다. 빈센트 셰리(Vincent Sherry)는 “싸이런즈”장에 관해 “말의 조직은 언어의 음악화를 목격한다.... 단어들이 청각의 증거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52). 구절의 소리들은 그들의 의미를 무시한 채 반복된다. 단어들의 의미론적 특징보다는 음성학적 특징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이 글쓰기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의 형태가 서술 속에서 운율(rhyme), 유음(assonance), 두운(alliteration), 모음의 생략(elision)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 “밝은 쪽으로 슬슬 나아가서, 그녀는 보일란에게 상냥한 미소를 보냈다”(U 11. 219)가 그 예가 된다. 또한 “블룸씨는 이섹스교에 다다랐다. 그래, 블룸씨는 예섹스교를 건넜다”(U 11. 215)에서는 소리가 한 문장 안에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 장이 단어의 소리를 실험하고 있을 때, 이 장의 서술은 전의 장(주로 ‘초기 문체’로 쓰여진 장)들의 서술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전의 장들에서는 ‘내적 독백’(interior monologue)의 기법을 통해 등장 인물의 의식을 읽을 수 있었고, 현실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의 장들에 비해 말의 유희와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전의 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서술에 대해 내용과 연관지어 존 폴 리퀄름(John Paul Requelme)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체적 전환점으로서의 “싸이런즈”는 이야기의 위기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싸이런즈”동안 보일란은 물리와 그의 약속을 지키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술에서의 전환은 이야기에서 그의 배우자를 블룸이 상실할 가능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Requelme 185)

그리고 이러한 말의 유희와 단어의 소리에 대한 관심 속에서 플롯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시된다. 이러한 말의 유희와 단어의 소리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하게 됨으로써 갖게 되는 효과에 대해 로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싸이런즈”에서 언어의 유희는 사실상 그날의 주된 사건으로부터의 일종의 언어적 전환이다. 주된 사건 즉 물리와 블룸의 간통은 무대 뒤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글쓰기가 언어적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안, 블룸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음악을 즐기고 있는 동안, 보일란은 물리와 그의 간통을 즐긴다. 그것을 달리 말한다면, 블룸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그의 외로움, 특히 그의 부인의 간통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독자는 산문의 말의 표면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의적으로 간접적으로 행위를 다루는 것은 억압된 고통을 포착하려는 전략으로 기능한다. (Lawrence

99-100)

즉 텍스트가 언어의 유희를 즐기고, 불륨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오먼드 호텔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이 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물리와 보일란의 만남은 일어나고 있다. 불륨이 그의 외로움, 아내의 간통에 대한 생각을 음악을 즐기면서 회피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이, 독자들도 이 장의 주요 사건은 외면한 채 이런 텍스트의 유희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장이 노래 또는 언어의 유희에 몰두하는 면은 불륨이 그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심정과 통하는 것이고, 그 결과 그의 고통은 역설적으로 더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듯 기법적인, 기교적인 요소들은 형식을 통해 주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도 한다.

여기서 이런 서곡을 앞부분에서 제시하고, 서곡을 제외한 텍스트 안에서 말의 유희와 소리에 대한 관심에 몰두하는 존재는 누구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존재는 ‘초기 문체’의 서술자와는 많이 다르다. ‘초기 문체’의 서술자는 대체로 그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초기 문체’의 서술자는 전형적인 모더니즘의 서술자이다. “세련된 나머지 그의 존재를 감추고, 그의 작품 안에 또는 뒤에 또는 그 너머 또는 그 위에 남아 있는 것이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P 215) 서술자이다. 그러나 여기 “싸이런즈”장의 서술자는 기교적인 실험을 앞세워 그의 존재를 확연히 드러낸다. “싸이런즈”장의 서곡에 나왔던 것을 다시 뒤에서 배열하는 행위, 말의 유희 등은 데이비드 해이만(David Hayman)이 명명한 바 ‘조정자’(arranger)의 행위에 해당한다. 해이만은 ‘조정자’에 대해 “작가, 서술자들과 다른 그러나 점점 도전적인 소재들에 대해 증가된 정도의 명백한 통제를 행사하는 존재 또는 인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4). 이 ‘조정자’에 의한 서술 양식은 여러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으로 인해 서술의 불연속성을 창조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율리시즈』 후반부의 서술 양식은 ‘조정자’에 의한 서술 양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페어홀(James Fairhall)은 이 ‘조정자’는 “서술자(narrator)도 아니고 내포저자(implied author)도 아닌, 『율리시즈』의 가장 놀라운(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형식적인 측면들의 많은 것에 책임이 있는 조정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다(205). 즉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조정자’는 『율리시즈』 후반부에서 전개되는 형식적인 실험을 조정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서곡에 나왔던 것을 뒤에서 다시 배열하는 경우와 말의 유희로 인해 문장을 변형시키는 경우에서만 ‘조정자’의 행위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싸이런즈”장에서는 크게 네 가지 서술장면이 병치된다. 첫 번째는 오먼드 호텔 안에서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블룸이 거리를 걷는 장면, 세 번째는 보일란이 오먼드 호텔에 잠깐 들렀다가 몰리에게 가는 장면, 네 번째는 조울사인 장님 소년이 다시 오먼드 호텔로 오는 장면들이 계속적으로 병치된다. 처음에 오먼드 호텔에서 이 장의 사이렌(siren)적인 바걸 케네디양과 도우스양이 총독의 행렬을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면서 간간이 거리를 걷고 있는 블룸의 모습이 제시된다.

Bloowho went by by Moulang's pipes bearing in his breast the sweets of sin,
by Wine's antiques in memory bearing sweet sinful words, by Carroll's dusky
battered plate, for Raoul. (U 11. 212)

그러면서 다시 오먼드 호텔의 장면이 제시된다. 그리고 다시 블룸이 거리를 걷고 있고, 펜팔하는 마사(Martha)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 편지지를 사는 모습이 나온다. 오먼드 호텔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리를 걷고 있는 블룸의 모습이 한 단락에 제시되기도 한다.

In came Lenehan. Round him peered Lenehan. Mr Bloom reached Essex
bridge. Yes, Mr Bloom crossed bridge of Yessex. To Martha I must write.
Buy paper. Daly's. Girl there civil. Bloom. Old Bloom. Blue Bloom is on
the rye. (U 11. 215)

그리고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오먼드 호텔을 나가 거리를 걷고 있는 블룸의 모습과 호텔 안의 모습이 병치된다.

이 장에서는 “징글.... 징글 경쾌한 마차가 징글”(U 11.215)이라는 구절들을 통해 간간이 거리를 마차로 달리고 있는 보일란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리고 보일란이 오먼드 호텔을 잠깐 들렀다가 마차를 타고 몰리에게 가는 장면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나 보일란이 마차를 타고 몰리에게가는 장면의 서술에도 특이한 점이 있다. 보일란이 오먼드 호텔을 떠나 한창 몰리에게 가고 있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보일란이 오먼드 호텔에 도착할 때 제시했던 구절을 다시 제시한다.

여기에서 서술자가 작위적으로 이야기를 조정하는 모습을 본다.

Blazes Boylan's smart tan shoes creaked on the barfloor, said before. Jingle by monuments of sir John Gray, Haratio onehanded Nelson, reverend father Theobald Mathew, jaunted, as said before just now. Atrot, in heat, heatseated. *Cloche. Sonnez la. Cloche. Sonnez la.* Slower the mare went up the hill by the Rotunda, Rutland square. Too slow for Boylan, blazes Boylan, impatience Boylan, joggled the mare. (U 11. 227)

이런 병치의 모습은 “배회하는 바위들”장에서 보았던 몽타쥬 기법에 의한 병치와 같다. 그리고 전후 문맥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전의 장에 나왔던 문장들이 끼어 들기도 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In Gerard's roseroy of Fetter lane he walks, greye dauburn. One life is all. One body. Do. But do. (U 11. 230)

이 문장들은 블룸의 의식 “음악은 매력을 갖고 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다”(U 11. 230)에 즉각적으로 뒤따르는 문장들이다. 이것은 앞의 도서관 장면에서 나왔던 문장들인데, 스티븐이 셰익스피어(Shakespeare)가 어떤 런던의 이웃 존 제라드(John Gerard)의 장미원 곁을 걷고 있음을 상상하는 내용이다. 이 문장들은 블룸이 셰익스피어를 생각한 것으로 인해 다소 변형되어 끼어든 문장들이다. 블룸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서술자가 임의적으로 삽입한 문장들이다. 이 장에서는 서술자의 글을 쓰는 행위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장의 서술자는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여러 기법과 기교적인 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서술자다.

이러한 기법, 기교, 특이한 서술자의 행위를 통해 “싸이런즈”장의 이야기는 전개된다. 그리고 이 장은 호머(Homer)의 『오디세이아』(*Odyssey*)에 나오는 노래로 유혹하는 사이렌과 관계가 있는 장이니만큼 많은 노래가 등장한다. 이 노래들은 블룸의 고통스런 상황(아내의 부정, 아들 루디의 죽음)을 대변한다. 블룸은 보일란을 뒤쫓아 오먼드 호텔에 들어온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들으며 블룸은 물리와 보일란이 만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물리와 처음 만났던 날들, 물리와 함께 콘서트에 갔던 날

들의 추억을 떠올린다. 오먼드 호텔에서 들려오는 노래 <모든 것이 사라졌네 (All is Lost)>는 블룸의 아내에 대한 상실감을 잘 표현해 준다. 그리고 사이먼 (Simon)이 부르는 마르타의 아리아의 “내가 저 아름다운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라는 첫 구절은 블룸으로 하여금 몰리와 처음 만났던 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그 속에서 상실감을 달래 보기도 한다.

- Each graceful look....

First night when first I saw at Mat dillon's in Terenure....

- *Charmed my eye...*

Singing. Waiting she sang. I turned her music. Full voice of
perfume of what perfume does your lilactrees... Spanisly eyes.

Under a peartree alone patio this hour in old Madrid one side in
shadow Dolores shedolores. At me. Luring. Ah, alluring. (U 11. 226)

블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노래는 오먼드 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속에서 그가 그녀 악보의 페이지를 넘김으로써 그녀를 도와주었던 몰리와 첫 만남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몰리와 보일란의 약속에 대한 그의 대체로 억압된 기대 속에서 일어난다(Requielme 211).

주제상 중요한 다음 노래는 <까까머리 소년>이다. 여기 “싸이런즈”장에서 까까머리 소년은 배신의 주제와 연결된다. 가짜 신부에게 배신당한 까까머리 소년과 마찬가지로 블룸은 보일란과 몰리에게 배신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싸이런즈”장에 실린 노래들은 블룸의 심화된 내적 갈등을 표현해 준다. 그러나 블룸은 이 장의 사이렌적인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슬픔과 상실감 속에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사이렌의 유혹 속에서 빠져 나오려는 의지를 보인다. 블룸의 의지는 이 장의 첫 부분에서도 나온다. 블룸은 이전의 장들에서 보일란을 만나면 피하느라고 바빴다. “레스트리고니언즈”(Lestrygonians)장에서 블룸이 보일란을 목격하였을 때, 그런 블룸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싸이런즈”장에서 블룸은 오먼드 호텔로 들어가는 보일란을 발견하고 뒤쫓아 들어간다. 블룸은 보일란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는 않지만 피하지도 않는다. 블룸의 보일란에 대한 태도가 이전의 장들과는 이런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블룸이 보일란을 어느 정도 직시할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블룸은 오먼드 바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의 펜팔 여자친구 마사에게 편지를

쓰려한다. 이것은 보일란과 물리의 만남에 임박해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는 블룸의 행위이다.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그의 고통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슬픔과 상실감 속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오먼드 호텔을 나오려는 그의 의지에서 엿볼 수 있다. “슬픔과 그것의 취하는 효과의 사이렌의 노래에 전적으로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블룸은 노래를 듣고 반응한다. 그러나 그때 그의 방식대로 계속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한다”(Requiem 211). 즉 블룸은 슬픔과 상실감 속으로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란을 어느 정도 직시할 수 있게 되고, 호머의 오디세우스(Odysseus)와 같이 슬픔과 상실감의 유혹 속에서 의지를 발휘해 빠져 나오는 블룸에게는 이제 그의 고통스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

“싸이런즈”장의 기법과 기교는 ‘초기 문체’로 쓰여진 초기의 장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 장에서는 기교적, 기법적, 문체적 실험이 두드러지고, 서술자의 행위 또한 초기의 장들과는 다르다. 이 장은 기교적, 기법적, 문체적으로 혁신적인 실험(즉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이 장의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비록 이런 형식적인 실험(서곡제시, 말의 유희, 말의 소리에 대한 관심, ‘조정자’에 의한 서술행위, 노래제시)으로 인해 서술의 단일한 진전은 방해받지만, 물리와 보일란의 밀회로 인한 블룸의 고통스런 상황, 그리고 그의 외로움과 상실감이 우리에게 잘 전달된다. 오히려 전통적인 소설의 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그 주제를 전달하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는 블룸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다. 형식과 내용의 조화에서 오는 주제 전달 효과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III

“사이클롭스” 장은 『율리시즈』의 어떤 다른 장들보다 정치적인 면을 보여준다. 조이스는 이 장에서 특히 “시민”(The Citizen)으로 대표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추한 모습을 비판한다. 또한 이 장에서 블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게 된다. 이 장에는 “시민”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해 터무니없고, 편협한, 모순으로 가득찬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자이다. “시민”의 이러한 모습은 호머의 『오디세이아』에 등장하는 앵꾸논 거인 사이클롭스 또는 폴리페머스(Polyphemus)와 대응관계를 이룬다. “시민”은 이 앵꾸논 거인과 같이 정신적인 ‘단안의 사람’(one-eyed man)으로서 광신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다. 그리고 이 장에는 일인칭 서술자가 등장하는데, 이 일인칭 서술자도 “시민”과 마찬가지로 “호머의 사이클롭스처럼 편견적이고 단안의 사람이다”(Parrinder 171). 또한 이 장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서술자인 삼인칭 서술자에 의해 삼입된 구절들도 단안적 특질을 지닌다. 각 삼입은 모두 단안적 접근을 띤 과장법이다. 이 장에는 이렇게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거인 사이클롭스를 연상시키는 단안적 특질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과 대조적인 인물이 있다. 블룸이 그러하다. 여기서 블룸은 유일하게 문제의 양면을 볼 수 있는 양안을 가진 인물로 나온다. 그 결과 “시민”과의 싸움에서 블룸은 승리하게 된다.

『율리시즈』에서 이 “사이클롭스”장은 “태양신의 황소들”장과 함께 대표적인 풍자의 장이다. 이 “사이클롭스”장에서 풍자의 대상은 폭력 특히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이다. 조이스는 특히 이 “사이클롭스”장에서 “시민”에 의해 대표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성에 대해 심하게 비난한다. “시민”은 아일랜드 모든 악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그는 악에는 악으로,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시민’은 물리적 힘의 민족주의의 허세부리는 대중의 얼굴을 대표한다(Fairhall 174). 그리고 “사이클롭스”장은 “시민”에 의해 대표되는 이러한 아일랜드의 민족주의의 모습을 풍자할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원천인 영국 제국주의의 횡포를 해학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유대인인 블룸은 편협한 국수주의자인 “시민”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다. “시민”이 비난하는 영국제국주의의 폭력성 못지 않은 국수주의자의 폭력성이 유대인인 블룸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블룸이 유대인이라는 점은 그가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주요 요인이다. “사이클롭스”장에서 블룸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심하게 공격받는다. ““사이클롭스”장이 속이는 유대인 상인에 대한 상스러운 서술자의 일화로 시작하고, 블룸에게 향하는 모욕으로 산재해 있고, 지독한 유대인의 머리를 때리려는 ‘시민’의 시도로 끝나는”(Fairhall 174)것은 다 반유대주의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다. 『율리시즈』를 통해서 헤인즈(Haines)와 디지

(Deasy)교장도 또한 유대인을 향한 영국적, 아일랜드적 편견을 표현했다. 여기 “사이클롭스”장에서 “시민”은 반유대주의를 요란하게 폭력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공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다. 조이스는 그의 망명 생활을 통해서 “아일랜드 민족주의와 다른 유럽의 민족주의들 사이의 유대에 크게 인상 받았는데, 이 유대는 반유대주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Fairhall 175). 이러한 전반적인 반유대주의 상황과 “시민”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합해져서, “시민”은 블룸을 심하게 공격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바니 키어넌 주점(Barney Kiernan's)에 모인 사람들에게 블룸은 못마땅한 존재인 것이다. “블룸은 ‘시민’과 그의 술 취한 친구들을 화나게 한다. 왜냐하면 그는 걸어 다니는 역설이고, 아일랜드의 상상되어진 단일체의 위협이기 때문이다.... 『율리시즈』를 통해서 우리는 블룸의 위치를 국외자, ‘다크 호스’ (U 12. 275)로 본다”(Fairhall 173). 그들은 그들의 단일체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분이 불확실하고, 그의 아버지가 헝가리계 유대인인 블룸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블룸이 신 페인(아일랜드 독립 운동)을 위한 생각을 그리피스(Arthur Griffith)에게 제공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도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나라의 가장 최근의 민족주의 운동의 핵심에 외부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편협성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시민”이 블룸과 논쟁을 할 때, 우리는 그의 태도가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며, 논쟁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공동체는 피의 유대에 의한 공동체이며, 그는 자신의 공동체에 대한 과거의 영광에 대해 향수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사람, 살아 있는 사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진 “바다 저 너머 우리의 보다 위대한 아일랜드”(U 12. 270)를 포함하여 거대한 상상되어진 공동체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견해는 편협함과 감상을 낳는다. “시민”이 논쟁을 참을 수 없는 것은 그는 이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신비적 개념에 의해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민”은 공동체에 대한 감상적인 편협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적이며, 비이성적이며, 남에게 관용적이지 못하다.

조이스는 이런 “시민”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조이스는 아일랜드를 착취하는 영국 제국주의를 나쁘게 보지만,

또한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조이스가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페어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916년 부활절 봉기의 유혈이 아니라 계속되는 처형들의 유혈이 그것의 보다 초기의 전성기동안 조이스를 매혹시켰던 그리고 1918년 12월에 선거의 압도적 승리와 1919년에서 1921년 사이의 앵글로 아이리쉬 전쟁의 길을 열었던 운동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그가 감명 받았음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 페인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했을지라도, 아일랜드 본질주의 그것의 원칙과 죽은 영웅들을 불러내는 것과 낭만화된 나라의 역사는 의심 없이 민족주의에 대한 그의 보다 초기의 불신을 확신했다. 민족주의 어두운 힘은 그가 『율리시즈』를 쓰고 있을 때, 유럽을 진동시키고 있었다. (Fairhall 177-178)

이 “사이클롭스”장에서 조이스는 영국 제국주의도 공격하고, 아일랜드 민족주의도 공격한다.

조이스는 『율리시즈』에서 예를 들면 해인즈에 대한 그의 묘사에서, 벨기에령 콩고에서 난폭한 행위에 대한 로저 케이스먼트의 폭로를 언급하는 데서 그리고 “사이클롭스”에서 빅토리아 여왕과 그녀의 제국을 다루는 두개의 패로디 구절에서 유럽(특히 영국)의 제국주의의 악덕과 허식을 비난했다. 그러나 그의 주된 표적은 결국 아일랜드 민족주의로 돌아간다. 그는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영국이 표방하는 태도의 거울 이미지로서 제시한다. (Fairhall 179)

조이스는 영국 제국주의보다 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클롭스”장에서 “시민”이 블룸에게 가하는 폭력성은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블룸에게 행하는 “시민”의 편협한 국수주의적 태도와 비이성적인 반유태주의적 태도를 통해 보여준다. 조이스는 제국주의보다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자, 인종주의자 그리고 제국주의자의 비합리성은 『율리시즈』 안에서 폭력과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폭력성 속에서 유태인인 블룸은 심하게 공격당한다. 그러나 블룸은 여기에 대응하여 유태인은 박해받는 민족이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이러한 폭력성에 대해 사랑의 가치를 역설한다. 우리는 여기서 평화주의적, 인도주의적 블룸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 점이 블룸이 “시민”에게 승리

하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다.

- But it's no use, says he. Force, hatred, history, all that. That's not life for men and women, insult and hatred. And everybody knows that it's the very opposite of that that is really life.
- What? says Alf.
- Love, says Bloom. I mean the opposite of hatred. (U 12. 273)

“시민”의 공격에 대해 블룸은 적극적으로 대항한다. 전의 장들에서 블룸은 그
에 대한 멸시와 조롱에 소극적으로 대처했지만, 여기 “사이클롭스”장에서 블룸
은 그러한 조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용감성을 보인다.

- Mendelssohn was a jew and karl Marx and Mercadante and Spinoza. And the Saviour was a jew and his father was a jew. Your God. (U 12. 280)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천명하는 블룸의 용감한 행위를 볼 수 있다. 자신의 정
체성에 용감하게 직면하는 모습이다. 여기에서 항상 그를 괴롭히는 요소 중의
하나인 그가 유대인이라는 점이 그가 당당히 유대인이라고 선포함으로써 극복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시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
적인 면을 노출하면서, 그러한 속에서 그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블룸의 모습
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조이스는 이 장의 특이한 형식 즉 두 서술자에
의한 서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를 풍자하고 있다. 이 장은 특
이하게 전혀 다른 특색을 가진 두 명의 서술자에 의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첫번째 서술자는 일인칭으로 서술한다. ‘무명의 빛 징수자’인데, 텍스트에는 정
확히 “나쁜 그리고 의심스러운 빛 징수자”(U 12. 240)라고 나와 있다. 이 일인
칭 서술자는 “저급한 더블린 관용구로 말하는 술집 단골인 서술 등장인물
(narrative persona)”이다(Lawrence 101). 또 다른 서술자는 삼인칭으로 서술한
다. 이 삼인칭 서술자는 일인칭 “서술자의 말의 독백을 방해하는 일련의 패로
디들”(Lawrence 101)이다. 리켈름은 이 서술자를 “조이스가 서사 목소리로 언
급했던 과장된 문체”라고 말하고 있다(213). 이 삼인칭 서술자는 과장된 문체

의 서사 목소리이며, 주입무는 풍자하는 것이다. 칼로 리나티에게 보냈던 『올리시즈』의 스키마에서 조이스는 이 장의 서술 기법을 '교대적 비대칭'(alternating asymmetry)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일인칭 서술자의 서술과 삼인칭 서술자의 패로디 사이의 비대칭 관계를 묘사하는 용어이다. 일인칭 서술자는 더블린 시내의 떠도는 소문들을 주로 전달하는데 주로 속어, 비어, 저급한 유행어, 관용어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삼인칭 서술자는 실제 장면을 신화, 여행안내기, 자장가의 음률, 신문문체, 전설, 사이비 영웅시체의 언어 등으로 묘사함으로써 폭력을 회화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삼인칭 서술자에 여러 비평가가 명칭을 붙이고 있다. 어떤 비평가들은 보통 이 구절을 '삽입'(interpolation)이라고 부르고, 프리즈 센(Friz Senn)은 이것을 "이질적 어휘의 패로디 구절(heteroglossaic parodic passages)"(33-34)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 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두 서술자에 의한 이야기의 교대적 제시는 독자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 두 서술자에 의해 제시되는 두 개의 분리된 담론을 연결시켜야 하는 것은 독자이다. 예를 들면 두 서술자가 상반되게 불륜을 제시하는 속에서 불륜을 정확히 판단해 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또한 일인칭 서술자에 의한 이야기의 전개와 과장된 삼인칭 서술자에 의한 다양한 문체로 된 패로디 구절들의 교대적 제시는 "연속적인 서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없는 담론의 새로운 영역의 갑작스런 출현이라는 담론의 공간화를 특징으로 하면서, 서술의 시간적 진전을 방해하고 시간적 경험의 이질성을 낳는다"(Kumar 72-82). 즉 이러한 서술의 교대적 제시는 텍스트의 인공성을 강조하고, 서술의 불연속성을 낳는 것이다.

특히 이 과장된 삼인칭 서술자는 주로 목록을 나열하고 풍자한다. 서술자는 아일랜드 영웅들의 목록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하는 나무들의 목록을 자세하게 나열한다. 그런데 이 서술자가 나열하는 목록들은 유사 목록이다. 즉 정확한 목록이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그가 나열하고 있는 아일랜드 영웅들의 목록 사이에서 셰익스피어, 모하메드(Mohammed), 단티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들을 발견하기도 한다. 나무들의 목록들은 무한히 확장되기도 한다. 이렇게 목록들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에 관해 로런스는 "무한한 세부 상황 속에서 목록을 나열하고 묘사하면서, 지금 책은 백과사전적 잠재력을 탐구한다.... 서술의 규정은 사라진다. 파다는 쓰기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102). 서술에서 이런 목록의 제시는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한 비평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목록은 행위의 시간성과 읽기의 시간성을 분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서술에서 이런 목록의 제시는 시간적 정지를 낳는다”(Kumar 70). 즉 서술의 자연스런 전개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과장된 삼인칭 서술자의 주된 임무는 패러디이다. 이 패러디 구절은 아일랜드 애국주의, 낭만주의, 감상주의, 아일랜드 문예 부흥들을 풍자한다. 이러한 삼인칭 서술자의 패러디 구절로 인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번은 서술자의 단일한 목소리로, 한번은 문학적, 비문학적 문체의 패러디 형태로 두 번 서술된다.... [이얼러스의] 표제와 같이, 구절들은 이번엔 요약한다기보다는 확대함으로써, 원래의 이야기에 과장된 각색을 제공한다.... 언어와 구절의 길이 둘 다 팽창된다” (Lawrence 102).

이렇듯 삼인칭 서술자에 의한 ‘삼입’(또는 패러디 구절)은 원래의 이야기를 풍자한다. 이들의 풍자 대상은 아일랜드 애국주의, 낭만주의, 감상주의이다. “시민”의 감상적인 애국주의도 산림에 대한 그의 탄원이 나무들의 멋진 결혼식과 새로운 나무 인구를 보장하는 사건으로 변형되었을 때 조롱되는 것이다. 또한 패러디 구절은 아일랜드 사회의 담론을 풍자함으로써, 아일랜드 사회를 풍자한다.

그러나 『율리시즈』에서 특징적으로 조이스는 사회의 담론 즉 문화의 받아들이진 생각들을 성문화하는 문화의 “익명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사이클롭스”에서 패러디들은 이중으로 겹쳐있다. 그것들은 담론의 형태를 패러디함으로써 사회를 패러디한다. “사이클롭스”에서 그는 문화의 목소리 즉 아일랜드 이야기들을 말했었던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을 패러디한다. 구절들은 아일랜드 선전의 다양한 형태들 즉 아일랜드 과거와 현재를 낭만화하고 단 순화하는 언어를 패러디한다. (Lawrence 103)

이렇듯 패러디 구절은 아일랜드 사회의 현재 담론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과거와 현재를 낭만화 하는 언어를 모두 풍자한다. 휴 케너(Hugh Kenner)는 “이 패러디 구절은 아일랜드 전원시풍의 과거, 오시애닉풍의 영웅, 오시애닉풍의 언론적 개작 같은 다양한 국가적 문학”(254-255)을 풍자한다고 말한다.

“사이클롭스”에서 조이스는 그것의 영광을 부풀리고, 그것의 잘못을 억압하

는 언어 속에서 구체화된 아일랜드의 신화적 자기 이미지를 풍자한다.... “사 이클롭스”에서 조이스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의 언어를 통해 보여진 아일랜드이다” (Lawrence 104).

아일랜드의 신화적 자기 이미지를 풍자한다는 것은 아일랜드 문예부흥(Irish Literary Revival)에 대한 풍자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에 관한 풍자도 있다. 언어를 통해서 과거를 영광되게 보전하고자 하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경향을 풍자한다. 즉 이 장에는 아일랜드의 옛 문학의 형태의 부활과 오래된 신화의 부활에 대한 풍자가 있다. 이것은 특히 서사로 된 패로디(epic parody) 안에서 잘 나타난다. 첫 번째 서사로 된 패로디를 이것의 예로 들 수 있다. 일인칭 화자 I가 그의 친구 조 하인즈(Joe Hynes)를 만나 주점으로 가고 있을 때 첫 번째 서사 패로디가 삽입된다. 일인칭 서술자는 단지 이 광경을 평이하게 서술한다.

So we went around by the Linehall barracks and the back of the courthouse talking of one thing or another. (U 12. 241)

그 후에 즉각적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니스페일에 한 개의 땅, 성 마이켄의 땅이 놓여있다”(U 12. 241)로 시작하는 서사 패로디에서 “더블린 시장은 ‘하나의 빛나는 궁전’(U 12 242)이 된다. 과거의 영광이 부활되는 것이다”(Lawrence 105). 이 구절과 다른 서사의 구절 대부분에서 흥미로운 것은 고어적, 문학적 형태의 부활을 시도한 것에 대해 풍자한다는 것이다(Lawrence 105). 또한 “시민”이 과거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도 타락한 서사 구절은 오래된 신화를 부활하려는 그의 시도를 풍자한다.

이렇게 조이스가 일인칭 서술자의 서술과 삼인칭 서술자에 의한 패로디 구절을 교대적으로 제시하는 기법에서 풍자에 대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그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아일랜드의 감상적 애국주의, 문학을 통해 옛 아일랜드의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는 아일랜드 문예부흥에 대해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조이스는 이 장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감상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국수주의자 “시민”을 통해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부정적인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러나 또한 조이스는 형식적, 문체적 측면 (패로디 구절의 제시)을 통해 아일랜드의 여러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진행되는 이야기에 서사 패로디 또는 여러

법률적, 의학적, 종교적, 과학적 패로디를 즉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아일랜드 감상적 애국주의, 영국 제국주의,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일환으로서의 아일랜드 문에 부흥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형식을 통한 조이스의 의견 제시이다. 이것과 더불어 이 장에서는 불륨의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불륨은 유태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추한 모습의 대표자인 “시민”에 의해 심하게 공격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에 대해 인도주의적 면모를 가진 불륨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우선 불륨은 이러한 폭력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시민”의 폭력에 대항해 인도주의적 사랑의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의 용감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륨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내적 갈등 중의 하나 즉 그가 유태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수모와 그에 따른 고통이 어떠한 해결점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IV

조이스는 다양한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에 의한 새로운 서술 방식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글쓰기 행위를 통해 그의 조국의 부정적인 현실을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과 갈등의 극복과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이스의 새로운 글쓰기 행위가 갖는 의의가 있다. 그의 새로운 글쓰기 행위는 『율리시즈』가 쓰여질 당시 세계적인 상황과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그의 조국의 부정적인 현실과 관련이 있다. 조이스가 『율리시즈』를 쓸 당시인 20세기 초반은 기술의 발달과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급변하는 시기였다. 그 당시의 예술가들은 그 당시의 시대상인 기술의 발달과 세계대전에 대해 그 나름의 예술관을 가지고 반응했다. 20세기 초반의 급격한 변화의 주원인인 기술의 발달과 세계대전 중에서 세계대전은 그 당시 예술가들의 예술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전후 몇몇 예술가들은 전쟁과 그것의 변형으로부터 그들의 영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 예로서 다다이스트(Dadaist)들은 다다(Dada)는 “세계 대전의 도살장에 대한” 하나의 반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격노한 광기로부터 인류를 구할 기본적인 예술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었다(Hughes 43, 51, 61). 즉 다다이스트들은 세

계대전으로 인해 혼란한 세상에서 예술을 통해 인류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다이스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을 때 조이스는 그의 조국을 떠나 유럽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작품을 쓰고 있었다. 조이스는 다다이스트나 그 당시의 많은 예술가들과 함께 “정치적 혐오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예술의 힘 안에서 언어의 질서를 바꿈으로써, 예술은 경험의 질서를 개정할 수 있고 그래서 사회 상황들을 바꿀 수 있다는 전통적인 아방가르드의 중심적 신화는 아직까지 붕괴하지 않았다”(Hughes 61)고 믿었다. 사실상 조이스는 다다이스트나 그 당시의 다른 예술가들과 많은 것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들과 공유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조이스는 그의 소설들, 특히 『율리시즈』 속에서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을 감행하여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에 의해 전통적인 소설과는 전혀 다른 소설을 써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쓰여진 조이스의 소설은 예술의 힘 안에서 언어의 질서를 바꿈으로써 예술이 새로운 경험을 창조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예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이러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아일랜드 현실에 적용된다. 아일랜드 현실은 여러 부정적인 원인들로 인해 무질서하고 혼란한 상황이다. 조이스는 이런 아일랜드 현실로부터 자초한 망명을 시도한다. 그는 사실상 자기 조국을 떠나갔으며, 아일랜드 안에서 전개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도 거부했다. 그리고 자기 조국에서 아일랜드 문인들이 주도하는 아일랜드 문예 부흥운동에도 그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스스로 망명을 자초한 상태로 그는 유럽에 머물면서 그의 창작에 몰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비록 혼란하고 무질서한 자기 조국을 떠나갔지만, 그의 조국을 이러한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아일랜드 문예 부흥에 참여했던 조국의 문인들 못지 않았다. 조이스가 전통적인 소설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법에 의해 그의 소설을 쓴 것은 조국을 이러한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글쓰기 행위를 통해 반영된 것이다. 즉 조이스는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소설을 창조함으로써 그의 나라 역사의 기존의 서사를 뛰어넘어 소설 속에서 궁극적으로 언어 그 자체에서 해방감을 맛보고자 했고, 더 나아가 소설 속에서 이러한 실험을 통해 고통받는 아일랜드를 위해 아일랜드 기존의 서사와는 다른 서사를 창조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조이스는 기법적, 문체적, 언어적 실험에 의한 새로운 글쓰기 행위를 통해 영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아일랜드의 정치적 상황, 카톨릭 종교에 의해 대표되는 아일랜드의 전통과 인습, 악몽 같은 아일랜드의 역사,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 등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이스는 여러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소설을 창조함으로써 아일랜드 기존의 서사와는 다른 새로운 서사를 창조하고자 했고, 그것을 통해 아일랜드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했던 것이다. 즉 조이스는 이러한 새로운 글쓰기 행위를 통해 영국 제국주의, 카톨릭 종교, 모순적인 아일랜드 민족주의에 시달리는 아일랜드를 위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형식적인 실험을 통한 새로운 글쓰기 행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고려대)

인용 문헌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Hayman, David. *Ulysses: The Mechanics of Meaning*. Wisconsin: U of Wisconsin P, 1982.
- Hughes, Robert. *The Shock of the New*. New York: Knopf, 1981.
- Joyce, James.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Ed. Chester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et al.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Kenner, Hugh. *Dublin's Joyce*. Boston: Beacon Press, 1962.
- Kumar, Udaya. *The Joycean Labyrinth: Repetition, Time, and Tradition in Ulysses*. Oxford: Oxford UP, 1991.
- Lawrence, Karen. *The Odyssey of Style in Ulysses*. New Jersey: Princeton UP, 1981.
- Parrinder, Patrick. *James Joyce*. Cambridge: Cambridge UP, 1984.
- Requelme, John Paul. *Teller and Tale in Joyce's Fiction: Oscillating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3.
- Senn, Fritz. "The Rhythm of *Ulysses*." *Ulysses: Cinquante NS pres*. Ed. L. Bonnerot. Paris: Didier, 1974. 33-42.
- Sherry, Vincent. *Ulysses*. Cambridge: Cambridge UP, 1994.

Abstract

The Narrative Discontinuity and Joyce's Aesthetic Creation
in "Sirens" and "Cyclops" of *Ulysses*

Heesun Kim

James Joyce presents Leopold Bloom as a major character in his novel *Ulysses*. His life presented in *Ulysses* corresponds to the mentally and morally paralysed lives which are portrayed in his early collection of stories *Dubliners*. The causes of the mentally and morally paralysed lives of Irish people insistently described by Joyce are quite various. First of all, Ireland is politically the colony of English imperialism. Other causes include the degradations of Catholicism and the corruptions of Irish nationalism. Joyce is surrounded by these Irish negative realities. Therefore, he continually reveals them in his works. They are especially well presented in *Ulysses*.

Leopold Bloom also lives a frustrated life in these Irish negative realities. Joyce reveals them and presents Bloom's internal conflicts and the way he overcomes them in *Ulysses*. Joyce conducts many experiments on forms in not only revealing these Irish negative realities but presenting Bloom's internal conflicts and the processes of his overcoming them. He develops the plot by various narrative methods and tries his technical, stylistic and linguistic experiments in presenting what he wants to communicate. He doesn't necessarily depend on the method of narrative continuity produced by linear development of the plot. He develops the plot by producing the discontinuity of narrative through many technical, stylistic and linguistic experiments. This thesis examines how Joyce effectively reveals his negative realities and how he presents Bloom's internal conflicts and the processes of his solving them in Irish

negative realities through his experiments on forms in "Sirens" and "Cyclops"

Joyce's new writing methods derive from his country's negative situations. *Ulysses* written in innovative techniques is a result from Joyce's desire to save his country from its negative situations. Finally, Joyce tries to create the new narrativ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narratives of Ireland and newly create his country's history for the afflicted Irish people.